



안내 : (02)2000-2114 제18569호 11판

mk.co.kr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동원그룹, HMM 인수 재도전

'참치 신화'를 넘어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을 꿈꾸는 동원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 인수에 다시 도전한다. 2023년 1차 인수 전에서 고배를 마신 지 약 2년 만이다.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이 최근 그룹 경영진에게 HMM 인수를 재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A5면

김명예회장은 최대 10조원으로 예상되는 HMM 인수자금 조달이 가능 한지 시나리오를 즉시 검토하라고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원양어

김재철 명예회장, 인수TF·자금조달안 마련 '특명'
HMM 몸값 2년 전보다 더 올라 8조~10조원 추정

선 선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김명예회장의 해운업 인수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최근 HMM 매각 재능 가능성에 대비해 TF를 꾸리고 자금 동원 능력을 점검하라는 경영진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동원그룹 측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그룹의 자금 동원 여력이 훨

씬 크다는 입장이다. HMM은 지난해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타진 중이던 6조4000억원대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한국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차 매각 당시 동원그룹은 하림과 불과 2000억원 안팎 차이인 6조2000억원대 인수 가능을 제시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가 상승과 영

구체 전환에 따른 채권단 지분 확대 등으로 현재 HMM 몸값은 8조원에서 최대 10조원대로 추산된다.

막대한 인수 가격 부담 때문에 잠시 했던 최근 분위기가 동원그룹 등판으로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다시 공을 들이는 것은 종합 물류그룹 도약이라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기준 수산·식품사업에 동원로엑스(물류),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항만)을 보유한 동원이 HMM을 품으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벤처체인을 구축하게 된다. 정지성 기자

한국 오는 손정의 회장 오늘 대통령과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사진)과 만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로 손 회장을 초청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오라클 등과 함께 추진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가리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스타게이트를 주도하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오픈 AI가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번 손 회장과 회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참여하기로 합의한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로드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순위 정책으로 'AI 3강 국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 협업을 도출해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링크 회장과도 회동하며 투자 약속을 받는 등 AI 분야 거물들과 잇따라 접촉한 바 있다. A14면에 계속▶

오수현·김태성 기자



"우크라 아이들이 강제로 복송됐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카테리나 라세프스카가 미국 워싱턴DC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군이 납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 중 최소 2명이 북한 수용소로 강제 이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어린이와 청소년 약 2만명이 납치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유럽과 북한 등에 위치한 165개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A8면 AFP연합뉴스

ISA 장기투자 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정부 중시활성화 대책 일환 내년도 성장전략에 담길 듯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ISA가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절세용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께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에도 세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4면

우선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ISA 비과세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생산적 금융을 강화 하려는 차원"이라며 "같은 장기 상품이라도 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에 대비

세제 인센티브는 점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SA는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19세 이상 국민이면 1인 1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소득 비

세제다. 최소 가입기간인 3년 뒤에 해

지하면 손익을 합쳐 200만원까지 비

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문자용 기자

세제 인센티브는 점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SA는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19세 이상 국민이면 1인 1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소득 비

세제다. 최소 가입기간인 3년 뒤에 해

지하면 손익을 합쳐 200만원까지 비

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문자용 기자

빈부격차 역대최대

상하위 20% 간 자산차이 45배로 벌어져
소득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富 결정

순자산 분위별
자산 보유액
17억
4590만원

한국 국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간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과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면서 가처분 소득 격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자산의 '부의 부인의법'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 4590만원이었다. 순자산 1분위 가구(하위 20%)는 3890만원(의 44.9배에 달해 지난해 42.1배보다 더 확대됐다. 2015년만 해도 순자산 격차는 33.5배 수준이었다. 3월 말 현재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관련기사 A2·3면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구별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상·하위 간 괴리가 크다는 의미다.

반면 실질 소득 격차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명목소득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고소득자 위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이 더 많이 거두면서 처분 가능 소득 차이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하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11년 8.25배에서 2024년 5.78배로 감소했다.

소득 연구 전문가인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동국대 명예교수)은 "일각에서 소득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며 "현금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서비스 등 현물 지급분까지 감안하면 소득 격차는 더욱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44.9배

3890만원
1분위 5분위

*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
자료=국가데이터처

진옥동, 신한금융 3년 연임 확정

회추위, 최종 회장후보로 추천



기업가치를 한 단계 높인 점, 차별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해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2029년 3월까지. 진 회장은 이날 "연임이라는 단어에 굉장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일류 신한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앞으로 3년도 신뢰에 가장 큰 방점을 찍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규우·이희수 기자

Money&riches

B1~8면

Atelier de Noël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

마음을 나누는 온기와 아날로그의 낭만을
현대백화점에서 체험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마트 | 현대홈쇼핑 | 현대백화점 | 현대그린푸드
한섬 | 대한상운 | 현대리바트 | 현대만세점 | 현대 아자밸 | 지수스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린아책마술관

